

#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뇌·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적용 효과

## Effects of Cerebrovascular Disease Prevention Program Designed for Workers in Small Scale Workplaces

(지도교수 : 문 덕 환)

강 혜 정<sup>1)</sup>

**목적 :**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해 많은 사업장에 뇌·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시행한 사업이 근로자의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추후 이 프로그램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.

**방법 :** 2011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뇌·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의 집중관리프로그램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4,576명의 근로자 중 프로그램 적용 전·후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가 가능했던 2,676명(58.5%)을 대상으로 혈압, 콜레스테롤, 비만도, 흡연, 운동부족 및 발병위험도를 전후 비교하였다. 발병위험도 평가는 KOSHA GUIDE, H-1-2010(직장에서의 뇌·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실무형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)을 적용하였다. 자료 분석은 paired t-test 및 McNemar 검정 등을 시행하였으며, SPSS(ver. 12.0)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.

**결과 :** 뇌·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을 전·후 비교한 결과 평균 수축기혈압이 4.09 mmHg, 이완기혈압이 5.47 mmHg 감소하였고, 총콜레스테롤은 2.07 mg/dL이, 비만도(BMI)는 0.1 kg/m<sup>2</sup> 감소하였으며, 흡연율은 4% 감소한 반면 규칙적인 운동 시행률은 29.8% 증가하였다.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가 저위험 이상인 근로자 2,052명 중 집중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발병위험도가 감소한 근로자는 1,451명(70.7%)이었다. 건강행위의 개선과 발병위험도의 변화 간에는 건강행위가 개선된 군이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가 낮았다(Odds ratio=1.7,  $p < 0.001$ ).

**결론 :** 정부지원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뇌·심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뇌·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행위의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 이러한 결과는 추후 뇌·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\*본 논문은 한국산업간호협회 '11년도 연구지원사업기금으로 수행되었음.

1)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